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이 세상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지혜는 최상의 생활로 이끈다.
금주의 법구 <법구경>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2월 16일) · 주간
제 933호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법인 관리·안거 다변화 토대 '성과'

조계종 중앙종회 193차 임시회가 남긴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193차 임시회는 법인법과 삼장원?염불원법 등 굵직한 중안 현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법인법의 제정 여부였다. 2005년 초안이 마련된 법인법은 2011년 3월 총무원장 명의로 첫 발의가 됐으며, 2년 간의 논의를 거쳐 수정 제정안을 내놓았다.

종회의원 해립 스님이 선학원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법 취지를 공감했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를 담당할 선학원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성직 스님을 선출했으며, 위원 선출은 의정단에 위임했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교육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총무원장이 밝힌 '삼장원?염불원법' 제정도 이번 종회의 성과 중 하나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운영 사찰 주지는 매 안거 1개월 이전 기간 중 정전하고 연찬할 분야와 과목, 교재, 문헌, 방부인원 등을 공지해야한다. 이들 수행기관에서 정전한 승려에 대한 안거이력은 교육원이 관리하며, 총림 내 있는 경우 방장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염불원이 총림에 있는 경우 총림법에 규정한 총림 염불원으로 도 볼 수 있게 규정했다.

연동 법안인 승가고시법 개정을 통해서 3급 승가고시에 선원을 비롯한 삼장원, 염불원에서 4안거 이상을 성만한 스님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제정 취지에 대해 "이번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안거수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며, 총림의 경우 염불원을 운영함으로써 총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헌중법제정특위로 이관돼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대표발의 원경 스님)도 수행 이력의 다양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

다.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보현행도 수행이력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중단 주요현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내놓기 위원회도 구성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의제를 연구하기 위한 의제개혁특별위원회와 다양한 출가제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출가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종단의 통일된 의제와 출가자 감소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러 굵직한 안건을 처리한 종회였지만 '육의 티'도 존재했다. 지난해 191차 임시회에서 쇠신입법 취지로 개정됐던 사찰법과 산중총회법, 선거법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요구로 다시 개정됐다.

법인법 수정 제정 통해

중단 법인 관리체계 세우

경학·참학 수행이력 인정

본사 주지 요구로 법 개정

종회 자율성은 숙제로 남아

본사 주지들의 요구였지만, 법의 실효성을 시험해 볼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종도들이 법에 대해 인식하기도 전에 너무 자주 법이 개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교구 이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찰법 개정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사 관할 사찰을 같은 교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다.

이밖에도 종회는 2012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원로의원에 대응, 대원, 종진, 혜성, 흥교, 성우, 성파, 설조, 천제, 적명 스님을 추천하는 등 중단 주요 인사안들을 처리하고 3월 21일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잃어버린 성보... 시민 제보로 찾다

학계에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연복사탑중창비가 서울시 문화재로 등 록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문화재 카페 회원인 시민 김석중 씨가 용산 철도 회관에서 우연히 비석을 발견해 시에 제보했다"며 "조만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월 21일 밝혔다.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는 1494년 태조 이성계가 개성 연복사의 오층불탑을 건립하게 된 내력을 담은 비석으로 이수부형 비액에는 전서체 '연복사탑중창지기'가 새겨져 있다. 1910년대에 서울 용산 지역으로 옮겨졌다. 연복사탑중창비는 명나라 석비 조형양식을 띠고 있으며, 중국식 석비 양식을 수용한 조선 초기 석비예술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새 정부, '소망' 대신 '사랑'을 택했나

시사저널, 박근혜 인맥 조사... 사랑의교회 교인 다수

일명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으로 불리웠던 이명박 前 대통령만민이나 현 박근혜 정부의 대 비서실장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이다. 이들은 각각 집사와 장로로 교회 소임을 보고 있다. 허 실 장과 주 수석의 부인들도 모두 권사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이명박 정부 때 소망교회 인맥이 각광을 받았다면 현 정부에선 사랑의교회로 교계 권력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도 초기 소망교회 등 특정 교회의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일 기자

현 정부의 인맥을 해부했다. 사랑의교회 신자 중 청와대 핵심 요직에 기용된 대표적인 인물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이다. 이들은 각각 집사와 장로로 교회 소임을 보고 있다. 허 실 장과 주 수석의 부인들도 모두 권사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재윤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사랑의교회 신도다. 신 내정자는 2004년부터 사랑의교회를 다녔고, 부인도 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신 내정자의 기부금 내역도 상당액이 교회 기부금임을 확인했다.

933호 INDEX

종합 부처사 불상 환수운동 본격화 7대 종교자 박대통령과 오찬 BBS 불교방송 파국 치닫나 불교인권위 자살예방센터 제안 한마음선원 동국대 1억원 지원

2·3 지방세계 출가열반절 임계법회



5 함께가요 강의실-선과 뇌과학 8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영월 범용사 12 문화 고려화불展 개최한 혜담 스님 20

행복바라미, 본격 출발!

날마다좋은날, 21일 홍보대사 위촉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3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은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모금 캠페인으로 4월 28일 우정국에서 시작해 5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16개 시·도 108개소에서 진행된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날마다좋은날은 이날 캠페인 진행을 위해 채조 손연재, 양학선, 펜싱 신아람, 사격 진중오, 김장미, 양궁 주현정, 최현주,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등 스포츠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양학선, 신아람, 최현주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이기홍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자비와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익 사업"이라며 "모두의 행복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신용카드 단말기가 부착된 행복바라미 거리모금함 및 자원봉사단 복장 공개 등이 진행됐다. 위촉식에는 이기홍 날마다좋은날 이사장과 양학선, 신아람, 최현주 선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위촉식에 참여한 홍보대사들과 인사들. 사진왼쪽부터 이기홍 날마다좋은날 이사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채조 양학선 선수, 펜싱 신아람 선수,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가운데는 거리모금함이다. 사진=박재환 기자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에 불날 씨앗을 뿌리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 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1 (현대불교)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주)현대불교신문사

삶은 고통이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거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할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